

# 중국어 전치사구의 분포적 특성

朴正九\*

## ◁ 목 차 ▷

- I. 들어가면서
- II. 전치사구의 출현위치
- III. 전치사구의 분포 상황
- IV. 주어를 기준으로 본 전치사구의 분포특성
- V. 부정사/조동사를 기준으로 본 전치사구의 분포적 특성
- VI. 동사를 기준으로 본 전치사구의 분포적 특성
- VII.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중국어에서 전치사(preposition)는 그 출현빈도가 상당히 높고, 그 수도 상당히 많다.<sup>1)</sup> 중국어 전치사의 용법을 숙지하지 않고서는 정확하고 다양한 중국어 표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대 중국어에서 전치사구는 상당히 다양한 분포적 양상을 보이고 있고, 각각의 전치사구는 문장 안에서 문법적으로 인가(license)된 위치에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전치사와 동일한 품사도 존재하지 않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어순(word order)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전치사구문을 사용할 때 상당히 많은 오류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들이다.

- (1) \*我们关于今年的工作安排下次讨论。(⇒ 关于今年的工作安排我们下次讨论.)

\* 成均館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전치사는 허사이지만, 총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Chao(1968)는 57개, 呂淑相(1984)와 Li & Thompson(1974)는 54개, 湯廷池(1979)는 51개를 열거하고 있다. 총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曲阜師範大學(1992)와 厲振蒼(1987)은 모두 128개를 수록하고 있지만, 목록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학자들 간에 개별 어휘의 품사에 대한 판단도 차이가 많이 존재한다. 중국어의 전치사는 동사로부터 허화(grammaticalization)해 왔고, 적지 않은 전치사들이 아직 허화 과정에 있으며, 각 전치사의 허화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이처럼 전치사의 범위를 확정지을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완전히 허화한 전치사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학자들은 중국어문법에서 전치사의 범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 (2) \*他从美国还没回来。 (⇒ 他还没从美国回来.)  
 (3) \*我看书在图书馆。 (⇒ 我在图书馆看书.)

중국어에서 전치사구는 문두에 출현할 수도 있고, 주어의 바로 뒤나 부정사, 조동사의 바로 뒤, 심지어 동사의 뒤에까지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전치사구가 이 모든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한된 문법적인 조건 하에서 적절한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때로는 하나의 전치사가 둘 이상의 위치에 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문장들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본고는 현대 중국어 문장에 출현하는 각종 전치사의 분포 상황을 관찰, 분류하고 그 분포적 특징과 조건을 분석하려 한다. 본고의 논의는 기존의 개별 전치사에 대한 산발적인 논의와 관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법체계 내에서의 전체 전치사의 분포적 특징과 조건을 원리적으로 귀납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문법 이론적인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 분석결과는 중국어 교육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전치사구의 분포상황

전치사구는 단독으로 슬어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전치사구는 동사의 앞에 출현하여 뒤에 오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한다.<sup>2)</sup> 그러나, 때로는 전치사구가 문장의 앞에 출현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전치사구의 출현위치를 대별하면 우선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A) 주어의 앞  
 (B) 주어와 동사의 사이  
 (C) 동사의 뒤

그의 출현위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A 주어 B 동사 C

그러나, (B)의 위치에 출현하는 전치사구의 위치는 다른 성분과의 분포관계를 다시

2) 본고에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통칭하여 동사라고 칭한다. 넓은 범주의 동사는 정태동사로 형용사를 포괄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는 다양한 성분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전치사구 간의 상대적인 선후 위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에서 부정사와 조동사는 전치사와의 상대적인 위치가 의미나 문법성에 영향을 미친다.<sup>3)</sup> 즉, 전치사구가 부정사나 조동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와 뒤에 출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두 경우의 문장 의미가 일치하지 않거나, 그 중 하나의 문장은 비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두 종의 위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B1) 주어 뒤, 부정사/조동사의 앞
- (B2) 부정사/조동사의 뒤, 동사의 앞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볼 전치사구의 모든 출현 위치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② A 주어 B1 부정사/조동사 B2 동사 C

전치사의 출현 위치는 주어, 부정사/조동사, 동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주어의 앞뒤

각 종 전치사구가 주어의 앞뒤에 출현한 상황을 살펴보자.

- (1) a. 关于今年的工作按排, 我们下次讨论。  
b. \*我们关于今年的工作按排下次讨论。
- (2) a. 对于这里的风俗, 我还不很熟悉。  
b. 我对于这里的风俗还不很熟悉。
- (4) a. 从上一周我们就开始上课了。  
b. 我们从上一周就开始上课了。
- (5) a. 在阅览室里, 他们俩整整看了一天的书。  
b. 他们俩在阅览室里整整看了一天的书。
- (6) a. 为了事业, 他想出多少五花八门的鬼点子!  
b. 他为了事业想出多少五花八门的鬼点子!

3) 부정사 이외의 부사들도 전치사와의 분포관계에 대한 제약이 발생한다. 부사의 범위와 종류가 많고 분포적 제약이 다양하므로 본고에서는 부정사만을 다루기로 한다.

- (7) a. 因为女儿生孩子, 妈妈请了假回家去。  
b. 妈妈因为女儿生孩子, 请了假回家去。
- (8) a. \*对他使了一个眼色。  
b. 他对我使了一个眼色。
- (9) a. \*给小李我打了个电话。  
b. 我给小李打了个电话。
- (10) a. \*往北京火车开去。  
b. 火车往北京开去。
- (11) a. \*把那本书我看完了。  
b. 我把那本书看完了。

예문에서 관찰되듯이 전치사구의 출현상황을 세 종류로 대별할 수 있다. 즉, 주어의 앞에만 출현하는 경우, 주어의 앞뒤에 모두 출현하는 경우, 주어의 뒤에만 출현하는 경우이다.

## 2. 부정사/조동사의 앞뒤

전치사구가 부정사/조동사와 함께 출현하는 경우를 살펴보자.<sup>4)</sup>

- (12) a. 我为了赚钱不继续读书。  
b. 我决不会为了赚钱读书。
- (13) a. 他不想在家里读书。  
b. 他在家不想读书。
- (14) a. 我不想跟他说话。  
b. \*我跟他不想说话。
- (15) a. 我不会给小李打个电话。  
b. \*我给小李不会打个电话。
- (16) a. 你应该把那本书看完。  
b. \*你把那本书应该看完。

일부의 전치사는 부정사/조동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지만, 일부의 전치사는 뒤에만 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사/조동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하는 경우는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관찰된다.

4) 중국어의 부정사로써는 '不', '没', '别', '莫', '末'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장 무표적인(unmarked) 부정사 '不'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겠다. '不'를 무표적인 부정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오직 부정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반면, 다른 부정사는 완료의 부정, 명령의 부정 등 보다 제한적인 부정 방식에 쓰이기 때문이다.

### 3. 동사의 앞뒤

소수의 전치사는 동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7) a. 他在前边坐着.  
b. 他坐在前边.
- (18) a. 他给我寄了一封信.  
b. 他寄给我一封信.
- (19) a. 他到学校去了.  
b. 今天讲到这里.
- (20) a. 火车往北京开去.  
b. 火车开往北京.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전치사들은 동사의 앞에도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앞에 출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전치사들은 동사의 뒤에 출현할 수 없다.

## Ⅲ. 주어를 기준으로 본 전치사구의 분포특성

주어의 앞뒤에 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전치사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① 주어의 앞에만 출현하는 전치사: 关于, 至于 등
- ② 주어의 뒤에만 출현하는 전치사: 把, 给, 往, 跟, 和, 用 등
- ③ 주어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对于, 从, 在, 为了 등

### 1. 주어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주어의 앞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로는 ‘關於’, ‘至于’가 있다. ‘關於’는 문두에 출현한다. 문두에 출현하는 성분은 한정성이 강하고 진술의 대상인 주제가 출현하는 위치이다. ‘關於’가 소개하는 성분은 그 뒷부분이 진술하는 대상이다. ‘至于’가 소개하는 성분도 마찬가지이다.<sup>5)</sup> 이들이 주제성이 강한 성분을 목적으로 취한다는 사실은 이들 전치사구를 생략할 수 있음으로 증명된다.

5) ‘至于’가 ‘關於’와 다른 점은 본래의 주제이외에 다른 주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 (1) a. (关于)今年的工作安排, 我们下次讨论。  
 b. 活动就这样定了。(至于)具体计划, 你们再研究吧。

## 2. 주어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주어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로는 ‘對于’, ‘從’, ‘在’, ‘爲了’, ‘因爲’ 등이 있다. 이들의 목적어는 원인, 처소, 시간, 목적 등을 나타낸다. 전치사구가 주어의 앞에 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주제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일 전치사구의 주제성이 주어보다 강하고, 전체 문장을 수식할 경우는 주어의 앞에 출현한다. 그러나, 반대로 주어가 전체 문장의 주제로서 기능할 경우는 전치사구는 주어의 뒤에 출현하게 된다. 다음 예문은 이와 같은 전치사구의 두 가지 출현위치의 대조를 잘 보여 준다.

- (2) a. 因为下雨, 我在家看电视, 他在写信, 都没出去玩。  
 b. ?我因为下雨, 在家看电视, 他在写信, 都没出去玩。  
 (3) a. 我在家读书, 不在别的地方读书  
 b. ?在家里我读书, 不在别的地方读书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전치사구는 주어의 앞에서는 전체 문장의 수식어가 되고, 주어가 주제가 될 경우에는 주어의 뒤에서 대조의 의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 3. 주어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주어 뒤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로는 ‘把, 給, 往, 跟, 和, 用’ 등이 있다.

- (4) a. 不把作业完成我不去打球。  
 b. 小李能把工作搞好吗?  
 (5) a. 他要跟我求婚。  
 b. 我不跟你说话了!

이러한 전치사는 왜 주어의 앞에 출현할 수 없는 것인가? 실제로 이러한 전치사들은 조동사의 앞에도 출현할 수 없다. 그들의 분포적 특징은 주제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보다는 다른 원인에 근거한다. 이들 전치사는 대부분 주어의 앞이나 조동사의 앞

으로 이동하지 못한다. 만일 이들 전치사의 목적어가 주제가 되려면,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전치사를 생략해야 하거나, 복지형식을 취해야 한다.

(6) (\*把)作业, 你今天能作完吗?

(7) 张三, 我不跟\*(他)说话了。

이들 전치사는 부정사/조동사의 뒤에서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이다.

#### IV. 부정사/조동사를 기준으로 본 전치사구의 분포적 특성

대부분의 전치사구는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출현한다. 그러나, 주어와 동사의 사이는 전치사 이외의 다른 성분이 많이 출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부정사와 조동사를 들 수 있는데, 이들과 전치사구의 상대적인 분포관계는 한국학생들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분포관계에 대해서 교사가 개별적인 예를 일일이 다 열거해서 설명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 절에서는 주로 부정사/조동사와 전치사 사이의 다양한 분포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를 살펴본다.

##### 1. 부정사/조동사의 앞이나 뒤에만 출현하는 전치사

부정사/조동사의 앞에만 출현하고, 그 뒤에는 출현할 수 없는 전치사는 아주 소수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 a. 他们除了吃饭之外就不会有机会在一起。  
 b. \*他们不会除了吃饭之外就有机会在一起。

‘除了’가 조동사의 뒤에 나타날 수 없음을 그가 제외시킬 범주를 미리 설정해야 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부정될 수도 없고, 조동사의 지배범주에 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정사/조동사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로는 ‘把’, ‘比’, ‘给’, ‘替’, ‘向’, ‘朝’ 등이 있다. 다음은 그들이 출현한 예문들이다.

- (2) a. 我不会给小李打个电话。  
 b. \*我给小李不会打个电话。  
 (3) a. 小李能把工作搞好吗?  
 b. \*小李把工作能搞好吗?

이들 예문에서 전치사구는 부사어로서 뒤의 술어부분을 수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문 (1,a)의 전치사구는 부정사와 조동사까지 그 수식범위에 넣고 있지만, 예문 (2,a), (3,a)에서는 전치사구는 부정사나 조동사의 수식 혹은 지배범주 속에 들어있다.<sup>6)</sup> 후자의 경우 전치사구는 동사와의 문법관계가 아주 긴밀하기 때문에, 동사구안에서 동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소개하는 대상은 '대상', '도구', '수혜자'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두 동사의 필수논항(obligatory argument)이다. 이러한 필수논항을 소개하는 전치사구는 근본적으로 동사의 최대투사범주인 e동사구(VP)를 벗어날 수 없다.<sup>7)</sup>

## 2. 부정사/조동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하는 전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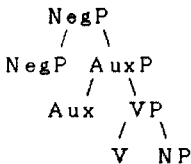
적지 않은 전치사는 동사의 앞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4) a. 我为了赚钱不再读书。  
 b. 我决不会为了赚钱而读书。  
 (5) a. 他在家不想读书。  
 b. 他不想在家里读书。

6) 전통문법에서는 부정사는 부사로서 수식작용을 한다고 말했지만, Chomsky(1988)이후 원리-참수어법(Principle-and-Parameter Grammar)에서는 중국어의 부정사가 최대투사범주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부정사가 동사구를 지배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7) Pollock(1989)이후, 원리-매개변인 이론(Principle-and-Parameter Theory)에서 각 가능범주의 최대투사범주를 제창하였다. 동사구가 조동사와 부정사의 지배를 받는 구조를 (1)과 같이 그럴 수 있으며, 이 때 부정사나 조동사의 앞에 출현할 수 없는 전치사구는 VP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1)





이러한 전치사로는 ‘爲了’, ‘在’, ‘對’, ‘從’, ‘根據’, ‘因爲’ 등이 있는데 모두 주어의 앞에도 출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앞에서 주어의 앞에 출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주제성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이 부정사/조동사의 뒤에 출현할 때 의미초점(contrastive focus)이 되는데, 특히 대비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대비초점의 기능을 갖는다.<sup>8)</sup> 전치사의 목적어가 포함된 전치사구가 동사구의 밖에 출현할 수 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의미, 통사적으로 동사와의 관계가 비교적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들의 분포적 특징은 앞에서 본 필수논항의 경우와 대조되는 것으로 전치사의 목적어는 임의논항(optional argument)이 된다.

## V. 동사를 기준으로 본 전치사구의 분포적 특성

대부분의 전치사구는 동사의 앞쪽에 출현하지만, 소수의 전치사는 동사의 뒤에 출현할 수도 있다. 동사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로는 ‘在’, ‘到’, ‘給’, ‘向’, ‘往’, ‘自’, ‘于’, ‘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어체에서 자주 쓰이는 전치사로는 ‘在’, ‘到’, ‘給’를 들 수 있다.<sup>9)</sup> 본 절에서는 동사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로는 이 세 가지 전치사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겠다.<sup>10)</sup>

### 1. ‘在’

‘在’는 처소를 소개하고, 동사의 앞과 뒤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 (1) a. 他坐在沙发上.
- b. 他在沙发上坐着.

‘在’가 왜 일반 전치사와는 달리 동사의 뒤에 출현할 수 있을까? 이는 이들 동사의

8) 대비초점에 관해서 박정구(1995b)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9) 동사 뒤에 쓰인 ‘在’, ‘到’, ‘給’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在’ 혹은 ‘在-NP’를 보어로 보는 관점, V+‘在’를 복합동사로 보는 관점 등이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장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박정구(1995)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음성, 음절, 어휘, 통사 등의 특성에 근거하여 이들을 전치사로 파악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본고에서 이들을 전치사로 보는 관점은 박정구(1995)의 관점을 따른 것이다.

10) ‘向’, ‘往’, ‘自’는 소수의 단음절 동사의 뒤에만 출현할 수 있어서, 출현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自’는 ‘向’, ‘往’보다도 훨씬 서면어적인 표현이다. ‘于’, ‘以’는 거의 서면어에서만 쓰인다. 동사의 뒤에 붙어서 출현하는 이들 전치사에 대해서는 朴正九(1995a)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의미적 특성과 함께 중국어 어순특징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처소와 관련된 동사들이다. 존현문에 쓰일 수 있는 존재, 출현, 소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거의 모두 ‘在’를 동사 뒤에 출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동사들이 전치사구를 그 뒤에 놓으려면 한 가지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즉, 중국어의 어순은 실제 상황의 행위나 동작의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다는 것이다.<sup>11)</sup> 전치사는 동사로부터 허파되어 왔고, 많은 전치사들의 아직 동사의 어휘적 의미를 다소간 간직하고 있음을 주지할 때, 의미적으로 동사와 전치사의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동사+在+명사구’의 구문에서도 먼저 동작이 있는 후에 존재상태가 발생함을 볼 수 있다.<sup>12)</sup>

- (2) a. 他在书店买了一本小说。  
b. \*他买了一本小说在书店。/ \*他把那本小说买在书店。

예문 (2b)가 성립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러한 동사들이 처소동사가 아니며, 동작행위의 완성 후에 존재상태가 발생한다는 것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문 (1)에서, (a)와 (b)는 문법적으로 구별되는데, 주된 요인은 화용론적인 것이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두 가지 다른 어순이 가능할 때 정보초점(information focus)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뒤쪽에 온다. 따라서, (1a)에서 의미초점은 ‘在床上’에 놓이게 되고, (1b)에서 의미초점은 ‘坐着’에 놓이게 된다. 이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3) A: 他在做什么?  
B: 他在床上躺着, 没做什么事。  
(4) A: 他在哪儿?  
B: 你看! 他就坐在那儿。/?你看! 他就坐在那儿坐着。

## 2. ‘到’

‘到’도 동사의 뒤에 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와 뒤에 출현하는 경우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는 그 중 한 위치에만

11) Tai(1985)는 문장성분의 배열순서가 실제 사건 중의 동작행위의 순서와 같이 배열된다고 주장하며, “시간순서원칙(Temporal Sequence Principle)”을 제시했다. 이러한 시간순서는 구체적이 상황의 아닌 보다 추상적인 인지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12) 서면어 표현에 쓰이는 ‘于’, ‘以’ 등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출현할 수 있다.

- (5) a. 咱们到公园散步, 好不好?
- b. 咱们跑到公园(去), 好不好?
- (6) a. 到下午三点开始上课。
- b. 上课上到下午三点。
- (7) a. 小说写到最后关头, 父亲突然来了。
- b. \*小说到最后关头写了字, 父亲突然来了。

‘到’가 동사의 앞과 뒤에 출현하는 두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주된 원인은 ‘到’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到’라는 의미는 시작과 동시에 완결됨을 나타낸다. 만일 동사의 앞에 ‘到’가 오게 되면, ‘到’의 상황이 완결된 후에 동작이 발생한 것이 된다. 만일 ‘到’가 동사의 뒤에 출현할 경우 상황은 완전히 반대가 된다. 즉, ‘到’의 목적어로 쓰인 장소나 시간은 앞의 동사의 동작이 완결되고 나서 도달하게 되는 종점이 된다.

### 3. ‘給’

‘給’은 동사의 앞뒤에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경우는 구별되어 사용되어야 한다.

- (8) 我的手表坏了, 你给我修修吧
- (9) 这封信是寄给他的。

두 가지 ‘給’의 기능은 다르다. 동사의 앞에 쓰인 ‘給’은 ‘替’나 ‘爲’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給’의 목적어는 ‘수혜자’의 의미역을 갖는다. 그러나 동사 뒤에 출현하는 ‘給’은 ‘替’나 ‘爲’로 바꾸어 표현할 수 없다. 동사 뒤의 ‘給’의 목적어는 종점의 의미역을 갖는다. 따라서, (9)에서 ‘給’ 뒤의 대명사를 처소구로 바꾸면 (10)에서 처럼 ‘給’을 ‘到’로 바꾸어 표현하게 된다.

- (10) 这封信是寄到他那儿的。

또한 ‘수여’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給’을 그 뒤에 부가하는 것도 ‘수여’의 동작으로 인한 대상물의 도착점을 수여동사의 뒤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13)

## VI. 나오면서

앞에서 전치사구의 출현 위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A 주어 B1 부정사/조동사 B2 동사 C

분포적 특징에 근거하여 전치사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의 경우가 관찰된다.

- ① (A)위치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 ② (A)와 (B1)위치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 ③ (A), (B1), (B2)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 ④ (B2)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 ⑤ (C)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

그러나, ①과 ②의 경우는 아주 소수의 전치사에만 해당되므로, 대부분의 전치사는 ③, ④, ⑤의 세 가지 경우로 대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치사구의 다양한 분포에 대해서는 개별 전치사 모두를 다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포적 특징이 동사와의 의미, 통사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전치사가 지배하는 목적어가 주요동사와 어떠한 의미관계를 갖는지가 분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음은 동사와의 의미관계에 따라 전치사를 분류하고, ①과 ②의 경우를 제외한 각 종 의미관계에 속하는 전치사의 분포 상황은 정리해본 것이다.<sup>14)</sup>

(1)

13) 수여동사는 '給'을 동사의 뒤에 둔지만, '취득'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는 '給'을 동사 앞에 둔다. 수여동사 뒤의 '給'은 종점을 소개하지만, '취득'의미 동사 앞의 '給'은 수혜자를 소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朴正九(1996)을 참고할 수 있으며, '給'과 공기하는 동사에 대한 분류는 朱德熙(1979)를 참고할 수 있다.

14) 때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전치사가 동사와의 의미관계를 두 개 이상 나타낼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따라 전치사구의 분포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의미력이 전치사의 분포에 영향을 미침을 말해준다.

의미관계	대표전치사	A	B1	B2	C
대상	對	✓	✓	✓	
기점	從	✓	✓	✓	
원점	在	✓	✓	✓	✓
근거	根據	✓	✓	✓	
원인	因爲	✓	✓	✓	
목적	爲了	✓	✓	✓	
종점	到	✓	✓	✓	✓
시사	被			✓	
객체	把			✓	
도구	用			✓	
방향	往			✓	✓
	朝			✓	
수혜	給			✓	✓
	爲			✓	

B1의 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는 모두 A의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문두는 주체의 위치이다. 또한 중국어의 주어는 필요한 경우 모두 주체가 될 수 있다. B1위치의 전치사구의 주체성이 부각될 경우 주어의 앞에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B2 위치에만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는 그들이 동사구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동사의 지배범주 안에서 동사에 의해서 그들의 출현이 인가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동사와 의미적으로도 매우 긴밀하여,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사의 필수논항이 된다. B1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전치사는 B2의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그들이 B2의 위치에 출현하는 것은 대비초점이 되고자하는 것이다. 그들이 부정사나 조동사의 뒤에 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의미적으로 부각된 정보임을 나타낸다.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전치사는

		A	B1	B2	C
從	장소기점			✓	
	시간기점	✓	✓	✓	
爲	수혜자			✓	
	목적	✓	✓	✓	
	원인	✓	✓	✓	
對	동작대상			✓	
	서술대상	✓	✓		

동작 완결 후의 결과로서 시간순서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의미정보를 소개하는 정보초점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치사구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한다. 즉, 주제성, 의미초점, 시간순서가 그것이다.

교학적인 면에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인 분석결과를 운용할 수 있다. 분포적인 특성에 의해 분류한 다섯 부류의 전치사구 중에서 첫째, 둘째 류에 속하는 것은 아주 소수이다. 이는 몇 개의 예문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분포적 특징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류의 전치사에 대해서는 동사 앞에 쓰인 상황과 비교하여 의미적으로 대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전치사는 셋째, 넷째 류에 속한다. 넷째 류에 속하는 전치사는 동사와의 의미적 긴밀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들 전치사는 모두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만 출현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이다. 즉, 주어의 앞에 오지 못하는 전치사는 일반적으로 역시 부정사나 조동사의 앞에도 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 류의 전치사는 가장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이들은 주제성, 대비초점 등이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Chao, Yuen-Ren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Chomsky, N. 《Some Notes on Economy of Derivation and Representations》, MIT, 1988  
 Li, Charles N. and Sandra A. Thompson <Co-verbs in Mandarin Chinese: Verbs or Prepositions?>, JCL 2, 1974  
 Pollock, J-Y <Verb Movement, UG and the Structure of IP>, Linguistic Inquiry 20, 1989  
 Tai, James H.-Y. 《Temporal Sequence and Chinese Word Order》, Iconicity in Syntax,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73

- 曲阜師範大學 《現代漢語常用虛詞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2  
 朴正九 <現代漢語“V-(NP)-P-NP”結構的分析>;《中國文學 23》, 1995a  
 朴正九 <現代漢語介詞組與否定詞“不”的分布關係>;《中國文學 24》, 1995b  
 朴正九 <北京官話“給”的各種用法及其句法特性的分析現代>;《中國語言研究 3》, 1996  
 呂淑相 《漢語語法論文集》, 商務印書館, 1984  
 厲振蒼 <現代漢語中的介詞>;《語言文字學 7》, 1987  
 朱德熙 <與動詞“給”相關的句法問題>;《方言 2》, 1979

湯廷池 <「跟」의介詞用法與連詞用法>; 《國語語法研究論文集》, 學生書籍, 1979

## 【中文提要】

介词是汉语中使用频率相当高的词类。为了学好汉语, 必须掌握其用法。但是韩语中没有与它相同的词类, 学起其用法来, 很不容易。特别是对介词组与其他成分之间的分布关系, 韩国学生都感到十分困难, 很难掌握其特征。

没有词形变化的汉语, 词序是影响语义的一个重要因素。一个介词组能出现的位置不仅是一个地方。在一个句子中, 介词组能出现在两个以上的位置, 而且随着出现位置的不同, 全句的语义也会跟着改变。因此把介词组放到不适当的位置, 会造出不合语法的句子, 也可能引起听话者的误解。

介词在句中的位置大分四种: (A)句首、(B1)主语和否定词/助动词之间 (B2)否定词/助动词之间、(C)动词后边。句首是主题(topic)位置。汉语主语随时能移到句首充当主题。能出现在(A)位置的介词组都是能修饰全句的。但是如果主语主题性甚强就越过介词组移到句首来。如果介词组的主题性更强, 主语就留在其后头。有些介词组只能出现在(B2)是因为它们处在动词组内。这些介词组在语义上与动词有密切关系。它们是在动词的管辖范畴之内受动词控制的。这些介词引介的是动词的必用论元(obligatory argument)。(B1)位置的介词除了能出现在句首以外, 大部分也能出现在(B2)位置。它们出现在(B2)位置是充当对比焦点的一种方式: 它们移到否定词或助动词后面, 就成为语义焦点。口语介词出现在动词后面, 都遵守时间顺序原则。这些介词组表示动作结束后的结果, 也能够充当信息焦点。总之, 决定介词组的分布, 大致上有三种依据: (一)主题性; (二)语义焦点(对比焦点和信息焦点); (三)时间顺序。控制介词分布的原则其实不很复杂, 汉语教学也应该运用此语法理论成果。

## 【주제어】

전치사, 분포, 주제, 의미초점, 대비초점, 정보초점, 시간순서원칙, 필수논항, 임의논항